

보도시점 2025. 3. 27.(목) 12:00
(2025. 3. 28.(금) 조간)

배포 2025. 3. 27.(목) 09:00

2024년 디지털 정보격차·웹 접근성·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포용 정책의 국민 체감 성과를 진단하고 「디지털포용법」 제정 등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24년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①일반국민과 디지털 취약계층 간 디지털 정보격차 수준*, ②국내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 수준**, ③전 국민의 스마트 기기·서비스 활용 의존도*** 수준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측정·비교하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 장애인·고령자 등의 웹사이트 접근·이용환경 수준을 조사하는 ‘웹 접근성 실태조사’

*** 전 국민 스마트기기·서비스 활용 의존도를 측정하는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2024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평균 77.5%로 전년대비 0.6%p 개선되었고, 장애인·고령자 등의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 수준은 66.7점으로, 작년보다 0.9점 상승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량에 대한 조절력이 약화되거나 통제력이 상실되는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2.9%로, 전년 대비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 격차 등 실태조사 주요 결과 >



①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는 디지털 접근·역량·활용 수준별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 취약계층(저소득층·장애인·농어민·고령층 등)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일반국민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전국 17개 시·도 1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 일반국민 7,000명(고령층 2,300명 포함), 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 각 2,200명, 북한 이탈주민·결혼이민자 각 700명(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는 지수 상으로는 미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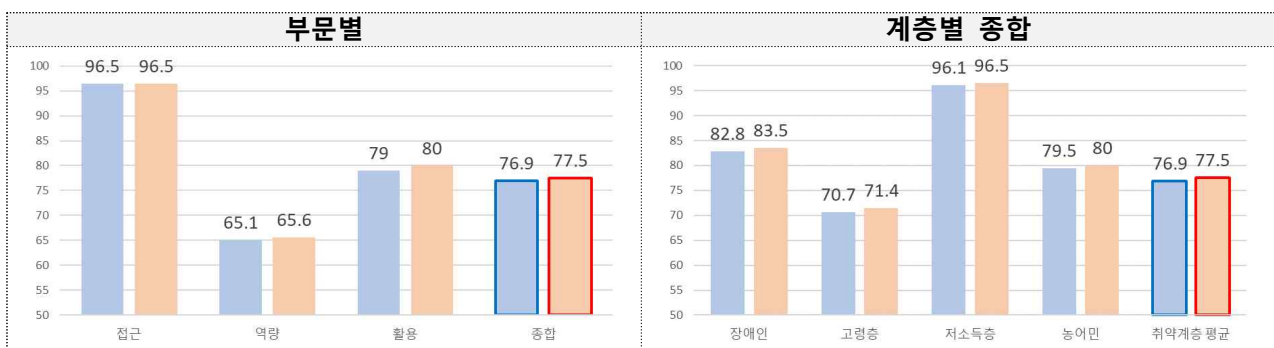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디지털 접근 수준¹⁾(20%), ▲디지털 역량 수준²⁾(40%), ▲디지털 활용 수준³⁾(40%)에 각각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산출되며, 2024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77.5%로 전년 대비 0.6%p 상승하였고,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1)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
- 2) 컴퓨터·모바일 기기의 기본적인 이용 능력을 측정
- 3) 디지털을 활용하여 전자상거래,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실제로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를 측정

※ 최근 5개년 추이 : ('20) 72.7% → ('21) 75.4% → ('22) 76.2% → ('23) 76.9% → ('24) 77.5%

부문별 결과를 살펴보면 ▲디지털 접근 수준은 96.5%(전년동), ▲디지털 역량 수준은 65.6%(+0.5%p), ▲디지털 활용 수준은 80.0%(+1.0%p)으로 모든 부문에서 전년과 같거나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도 고령층이 71.4%(+0.7%p), 농어민 80.0%(+0.5%p), 장애인이 83.5%(+0.7%p), 저소득층이 96.5%(+0.4%p) 순으로 나타나 모든 계층에서 정보화 수준이 향상되었다.

< 부문별·계층별 디지털정보화수준('23년 : ■ / '24년 : ■) >



② 웹 접근성 실태조사

‘웹 접근성 실태조사’는 웹사이트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8개 업종*의 웹사이트 1,000개를 임의 추출하여 접근성 지침(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업종 중 선별(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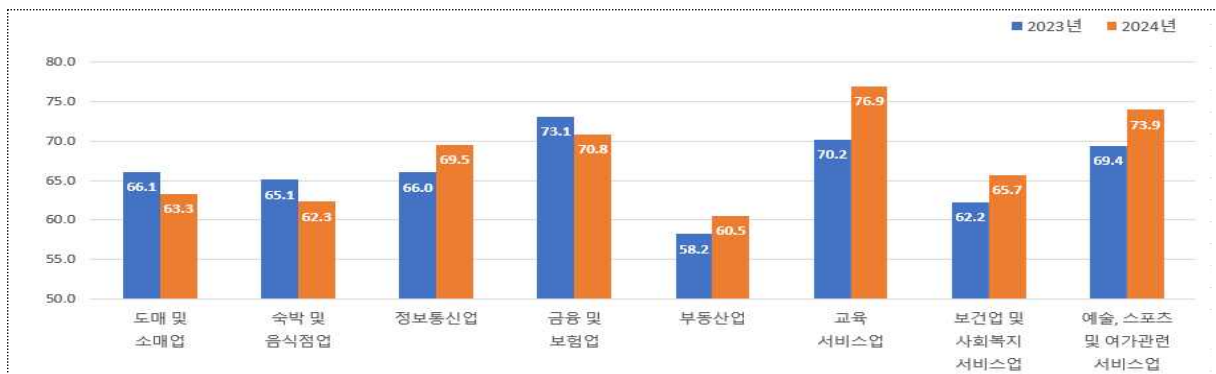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가표준, KS X OT0003)

조사 결과, 웹 접근성 전체 평균 점수는 66.7점으로 전년 대비 0.9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년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 ('19년 53.7점 → '20년 60.7점 → '21년 60.8점 → '22년 60.9점 → '23년 65.8점 → '24년 66.7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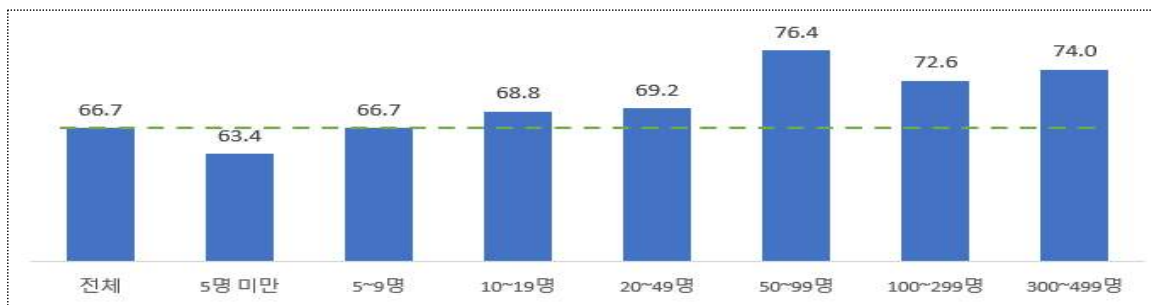
업종별로 살펴보면, ‘교육서비스업’ 분야 웹사이트가 76.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년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업’ 분야 웹사이트가 60.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 업종별 웹 접근성 수준 >



규모별로 살펴볼 때, 50~99명 규모의 사업체가 76.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는 종사자 수가 많은 사업체일수록 웹 접근성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 종사자수별 웹 접근성 수준 >



③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는 국민의 스마트폰 이용 행태를 조사하여 과의존 현황을 파악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전국 17개 시·도 10,000가구를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 스마트폰 과의존 : 스마트폰을 ① 일상에서 과도하게 이용하는 생활 습관이 두드러져서 (현재성), ② 스스로 이용을 조절할 수 없고(조절 실패), ③ 신체·심리·사회적 문제를 겪게 되는(문제적 결과) 상태를 의미하며 ①~③ 척도에 따라 과의존 위험군 수준*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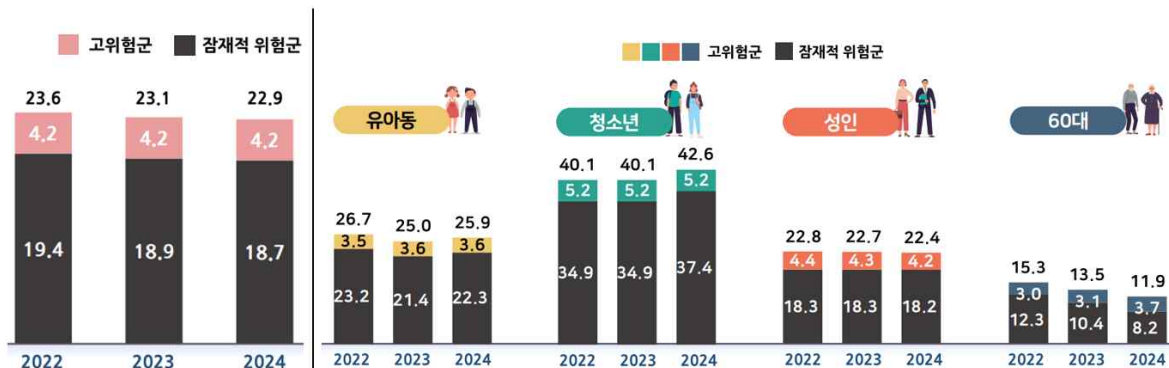
* 연령대별 기준 점수대에 따라 일반 사용자군→잠재적 위험군→고위험군으로 분류

’24년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고위험군+잠재적위험군)의 비율은 22.9%로 전년(23.1%) 대비 0.2%p 감소하였다.

※ 과의존 위험군 비율 : (’22) 23.6% → (’23) 23.1% → (’24) 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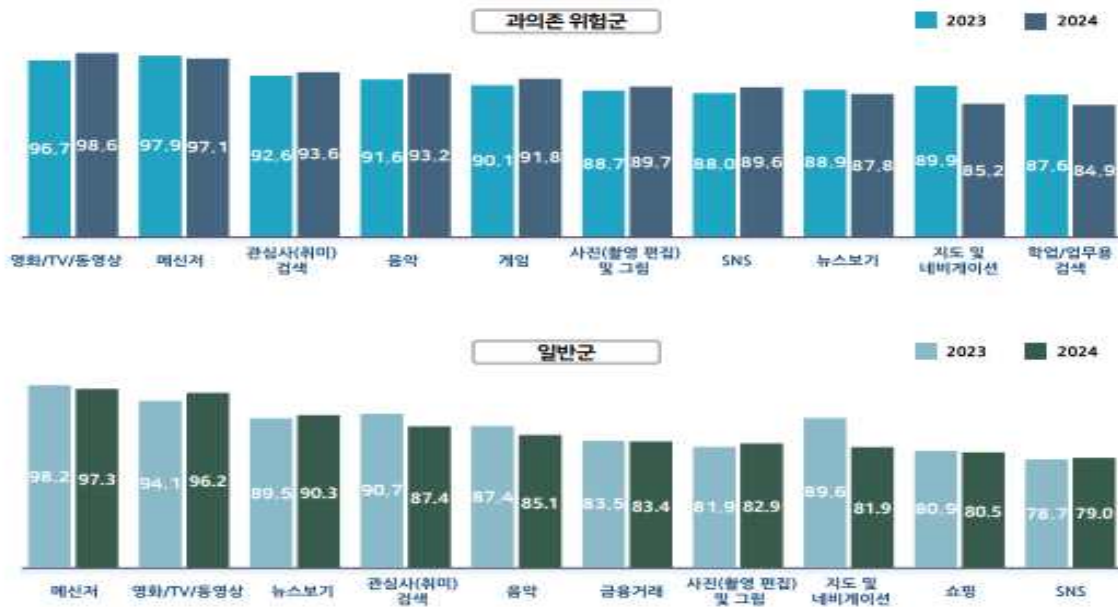
연령대별 과의존 위험군 비율을 살펴보면, 청소년(만10~19세) 42.6%(+2.5%p), 유아동(만3~9세) 25.9%(+0.9%p)은 전년 대비 증가했고 성인(만20세~59세) 22.4%(△0.3%p), 60대 11.9%(△1.6%p)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연도별·연령대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



과의존 위험군은 영화/텔레비전/동영상, 메신저, 관심사 검색, 음악 등 순으로 이용률이 높은 반면, 일반사용자군은 메신저, 영화/텔레비전/동영상, 뉴스 보기, 관심사 검색 등의 순으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콘텐츠 이용률 (단위: %)>



동 실태조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면접조사 결과와 웹사이트의 접근성 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이루어졌으며, 조사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www.nia.or.kr) 누리집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담당 부서 <총괄>	정보통신정책실 디지털포용정책팀	책임자	팀장	권오민 (044-202-6150)
		담당자	사무관	최지은 (044-202-6155)
		담당자	사무관	이상민 (044-202-6152)
		담당자	사무관	이지원 (044-202-6153)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